
한국십진분류법 역사(900) 분야 개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f Revision of the History Class(900) for the KDC 6th Edition

곽철완(Chul-Wan Kwak)**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십진분류법(KDC) 제5판』이 발간됨에 따라 역사(900) 분야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분석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구분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구분표의 확장, 지역구분에서 계층구조의 강조, 북한 지역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 외국의 주요 국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역구분, 중앙 및 서남 아시아 국가들의 위치 조정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대한민국의 시대구분을 확장하였다. 셋째, 중국과 일본의 항목 주기를 간소화하였다. 넷째, 용어의 조정으로 중국 및 일본의 지명과 인명을 자국발음으로 변경하였고, 외국 지명에 대해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음 그대로 적용하였다. 6판의 개정방향으로 한국 지역구분에서 계층구조를 적용한 광역단위 전개, 해당 국가의 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전개, 자국에서 사용하는 지명표기, 시대별 연도구분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KDC, 역사류, 지역구분표, 지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se the revised contents of the history class in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KDC), 5th edition, and then identify problems and propose the revised contents for the KDC, 6th edition. Major analysed areas are divided into four. First, geographic area table is discussed. It includes extension of the geographic area table, emphasis of hierarchical structure in the geographical area, revision

of North Korean geographical names, extension of subgeographical structure of major nations in the world, and revision of nations in the central and west Asia. Second, Korean time period is extended. Third, the notes of entries of the Chinese and Japanese history areas are shorten. Fourth, the geographical and personal names are changed their native pronunciation, specially Chinese and Japanese. For the revision of the KDC, 6th edition, four areas are discussed: first, Korean geographic areas would be categorized by broaden area, second, the areas are arranged from the capital of the nation to others, third, foreign geographical names would be used their native names, and last, time period would be categorized by years.

【Keywords】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5th ed. KDC, History Class, Geographic Area Table, Geography

1. 서론

도서관 분류표는 과거의 기록된 지식을 기반으로 구조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 분류표의 속성은 지속적인 분류표 개정작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주요한 분류표도 연속적으로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다. 한국십진분류법(KDC) 역시 1964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정판이 발간되어 2009년에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이 발간되었다.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이 발간되었던 1996년 이래로 지명의 변화되고, 도서관

* 이 논문은 2008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kwak@kangnam.ac.kr)

논문접수일자 : 2009년 8월 26일 논문심사일자 : 2009년 9월 5일 게재확정일자 : 2009년 9월 19일

에 한국십진분류법 역사(900) 분야의 문헌의 수집이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국내에서는 행정구역상 군지역이 시로 승격되기도 하고, 지역별로 여러 행정구역이 통합되거나 분리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중심의 국제교류에서 아시아, 유럽 등으로 교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 도서관에 다양한 국가에 관한 자료의 수집이 증가하였다. 특히 1988년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해외여행자수가 증가하여 2008년 통계에는 전 국민의 14%가 최근 1년 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보고하고 있다(통계청 2008). 이러한 변화는 출판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역사(900) 분야의 신간 발행 종수가 2007년 대비 2008년에 8.7%나 증가하였고, 번역도서 역시 역사(900) 분야에서 19.7%나 증가하여, 전 번역도서의 평균 증가율 8.7%보다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08).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출판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이 간행되었다.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은 이전 판에 비해 지리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가별로 지역구분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개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분류표에 대한 연구는 첫째, 하나의 분류표를 조사한 연구와 둘째, 두 가지의 분류표를 조사 및 분석한 연구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분류표를 조사한 연구로는 KDC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정해성 2007), 컴퓨터과학분야에 대한 연구(여지숙, 박미성, 황면, 오동근 2008), 식물학에 대한 연구(김정현 2008), 농학에 대한 연구(문지현 2000, 김정현, 문지현 2001), 식품영양학에 대한 연구(김정현, 강명수 2008), 화학공학에 대한 연구(여지숙, 이준만, 오동근 2008), 언어에 대한 연구(김자후 2003), 역사에 대한 연구(김자후 2005) 등이 있다. 또한 DDC에 있어서 총류에 대한 연구(최희곤 1991), 문헌정보학에 대한 연구(이창수 1983, 1999), 종교에 대한 연구(오동근, 여지숙 2000), 농학에 대한 연구(이명규, 김정현 2003), 기술과학에 대한 연구(정옥경 1981) 등이 있다.

두 개 이상의 분류표를 비교 및 분석한 연구로는 KDC와 DDC에 있어서 종교분야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한

연구(변우열 1992, 김명옥 2002), KDC, DDC, LCC의 기독교에 대한 비교연구(김명옥 2003), KDC와 UDC에 있어서 지리, 전기, 역사 분야에 대한 비교연구(이창수 2003), LCC와 KDC의 지도자료 비교연구(이창수 2007), 지리구분 분류체계(곽철완 2004), 지역구분에 대한 연구(남태우, 백혜경, 이형미, 정수진 2008) 등이 있다.

3. 제5판의 개정 내용

3.1 지역구분

3.1.1 특성

5판의 역사(900) 분야에 있어서 지역 구분의 커다란 변화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표에서 지명 항목의 나열을 최소화하고, 대신 조기표의 '지역구분표'를 상세히 전개하였다. 둘째, 지역구분에 있어서 계층 구조 원칙이 강조되었다. 셋째, 북한 지명을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넷째, 외국 국가 지역구분이 두 방향으로 나누어졌다. 주요 국가는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그 이외의 국가는 국명만 기재하고 있다. 다섯째, 중앙 및 서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분류기호를 재조정하였다.

3.1.2 지역구분표 확장

4판에서는 역사(900) 분야 본표에서 지역을 세분화하여 다른 학문 분야에서 지역구분이 필요할 때 이를 적용하였다. 5판에서는 지역을 세분화할 때 새로 확장된 '지역구분표' 조기표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구분에 있어서 '지역구분표' 사용은 DDC의 보조표 기능을 적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4판에서는 '지역구분표'는 조기표의 기능으로 지역구분이 상세히 되어 있지도 않았고, 지역구분의 합성은 본표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예를 들면,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 한다." 주기가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지역구분을 본표를 통하여 합성하는 전략은 각 지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지역구분표' 조기표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동시에 본표의 주기에 백과사전처럼 많은 설명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5판에서는 '지역구분표'를 보조표 형식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구분을 '지역구분표'를 통하여 합성하도록 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지역구분표 확장 비교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912	中國 China	912	중국(中國) China
.1	北部(華北) North China	.1	북부(北部)(화북 華北) Northern China 황하유역을 포함한다.
.11	東北地區		지역구분표 -121에 따라 세분한다.
.12	河北省(冀)		
.13	山東省(魯)		
〈지역구분표〉		〈지역구분표〉	
-1	아시아	-12	중국(中國)
-11	한 국	-121	북부(화북 華北) Northern China 황허(黃河) 유역을 포함한다.
-12	중 국	-1212	허베이성(河北省), 톈진(天津), 베이징(北京)
-124	대 만	-12124	톈진(天津)
-126	몽 골(몽고)	-12126	베이징(北京)

3.1.3 계층구조 원칙 적용

4판 지역구분은 부분적으로 상위개념-하위개념을 나타내는 계층구조를 적용하지 않고 인접한 곳에 배치하는 대등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방법은 DDC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5판에서는 외국의 지역구분은 모두 계층구조를 적용하여 수정되었다. 지역구분을 계층구조로 적용하는 것은 지역구분이란 상위범주 내에 하위 범주가 포함된다는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십진분류법의 장점이지만 동시에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지역이 9가지의 하위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DDC는 분류기호의 효과적인 사용 측면에서 지역구분에 대등구조를 적용했고, 4판에서 역시 그렇게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5판에서는 분류의 기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의 지역에 대해서는 계층구조를 적용하였다. 일

본의 지역구분 예를 든다면, 일본 혼슈(本州)는 도호쿠 지방, 간토 지방, 호큐리쿠 지방, 주부 지방, 긴키 지방, 주고쿠 지방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혼슈(-132) 아래 도호쿠 지방(-1321), 간토 지방(-1323) 등을 배치하였다. 4판과 비교하면 혼슈는 913.2이며, 혼슈에 포함된 도호쿠 지방은 913.3으로 상호 대등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지역구분은 계층구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행정구역이 계속 변화되고 분류기호가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계층구조의 적용을 다음 개정으로 미루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구분에 계층구조 원칙을 적용하여 새롭게 분류기호를 조정하였다면, 모든 지역구분에 적용해야 할 것이며, 분류기호가 길어지는 문제점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표 2 참조).

〈표 2〉 지역구분에 있어서 계층구조로 변경 사례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지역구분표)	
913.1	北海道地方 Hokkaido	-13	일본(日本)
.2	本州 Honshu	-131	홋카이도(北海道) Hokkaido
.3	東北地方(奥羽) Tohoku	-132	혼슈(本州) Honshu
.4	關東地方(坂東) Kanto	-1321	도호쿠 지방(東北地方)
.5	北陸地方(北國) Hokuriku	-1323	간토 지방(關東地方)
.59	中部地方 Chubu	-1325	호쿠리쿠 지방(北陸地方)
.6	近畿地方(畿内, 上方, 關西) Kinki	-1326	주부 지방(中部地方)
.7	中國地方 Chugoku	-1328	긴키 지방(近畿地方)
.8	四國地方(南海道) Shikoku	-1329	주고쿠 지방(中國地方)
.9	九州地方(西海道, 西國, 西南) Kyushu	-133	시코쿠지방(四國地方) Shikoku
.99	沖繩(琉球)	-134	규슈(九州) Kyushu
		-1349	오키나와현(沖繩縣)
		-138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 보닌열도)

3.1.4 북한 지역의 개정

4판에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였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행정명칭을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많은 기관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의 효과적인 조직과 이용 측면에서 현재 사용하는 지명을 적용하는 것이 정보활용과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판의 북한 지역구분은 4판의 북한 지역구분을 기반으로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과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면, 량강도, 자강도, 새별군, 김책시, 김형직군, 김정숙군 등이 새로 포함되어 재정리 되었다.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에 포함시키지 말고 독립국가로 표기하는 것을 주장하는 연구(김자후 2009)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표 3 참조).

3.1.5 하천 및 상징적 지역 기재

4판에서는 산, 하천 명칭 등이 지역구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지역구분이 지역 역사를 기반으로 범주화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행정명칭이 중심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산이나 하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자료의 출판도 증가하여 도서관에서 이들 자료에 대한 분류기호 요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주요 하천들은 여러 시·도를 거치면서 흐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임의로 하천 관련 자료를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5판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에 대한 분류기호를 부여하였는데 북한의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 예성강과 남한의 4대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 포함되어 있다(표 4 참조).

<표 3> 북한 지역의 지역구분 변경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지역구분표)
911.1 咸鏡道(關北地方) Ham-kyong province	-11 대한민국
.11 咸鏡北道	-111 관북지방 關北地方(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나선특급시)
.12 穩城郡, 慶源郡, 鍾城郡, 羅津市, 慶興郡	-1111 함경북도
.13 會寧郡, 清津市, 富寧郡, 茂山郡, 鏡城郡	-1112 나선특급시, 온성군, 새별군, 은덕군, 회령시, 부령군, 무산군, 연사군
.14 明川郡, 吉州郡, 鶴城郡, 城津市, 城津郡	-1113 청진시, 김책시, 경성군, 어랑군, 화성군, 명천군, 길주군, 화대군
.15 咸鏡南道	-1114 량강도
.16 惠山郡, 甲山郡, 三水郡, 長津郡, 豊山郡, 端川郡	-1115 삼지연군, 대흥단군, 보천군, 백암군, 운흥군
.17 利原郡, 北靑郡, 新興郡, 洪原郡	-1116 해산시, 삼수군, 갑산군, 김형직군, 김정숙군, 풍서군, 김형권군
.18 咸興市, 興南市, 咸州郡, 定平郡	-1117 함경남도
.19 永興郡, 高原郡, 元山市, 文川郡, 安邊郡	-1118 단천시, 허천군, 북청군, 덕성군, 이원군, 신포시, 흥원군, 낙원군, 신흥군, 부전군, 영광군, 장진군
	-1119 함흥시, 함주군, 정평군, 금야군, 요덕군, 금야군, 고원군

<표 4> 하천의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지역구분표)	
-111	관북지방 關北地方(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나선특급시) 두만강을 포함한다.
-112	관서지방 關西地方(평양직할시, 남포특급시,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압록강을 포함한다.
-1127	평안남도 대동강을 포함한다.
-113	해서지방 海西地方(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특급시, 강원도(북한지역) 예성강을 포함한다.
-115	경기도(京畿道) 한강을 포함한다.
-117	충청도(忠淸道) 금강을 포함한다.
-118	경상도(慶尙道) 낙동강을 포함한다.
-1195	전라남도(全羅南道) 영산강을 포함한다.

하천의 분류 기준은 하천이 흐르는 시·도를 기준으로 하되 상류보다는 하류에 중심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압록강의 경우 양강도에서 발원하여 자강도를 거쳐 평안북도를 통해 서해로 흐른다. 이중 압록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은 자강도와 평안북도이므로 이 두 지역을 포함한 관서지방(평양직할시, 남포특급시,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122)에 분류하였다. 한강의 경우,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를 거쳐, 경기도와 서울을 지나간다. 한강이 부분적으로 강원도, 충청북도와도 관련이 있지만, 하류에 중심을 둔다는 원칙으로 경기도에 포함되었다. 이 원칙은 인간이 강을 생각할 때, 상류보다는 하류에서 그 강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외에 상징적인 지역으로 독도(-118295)와 우리나라 최남단인 이어도(-11999)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도서관 관점에서 일본의 오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1.6 주요 국가의 지역구분 세분화

5판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는 지방을 세분화하고 일반 국가는 국명만 기재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 출판물이 많고 우리나라

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9개국(미국, 일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인디아를 포함하는 총 12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로 세부적으로 지역 구분된 나라에서는 한국십진분류법의 지역구분 방향인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전개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4판에서는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지역구분이 되어 있다. 하지만 5판에서는 영국을 원칙적으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연합국가의 관점에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국의 지역구분은 북쪽지방인 스코틀랜드부터 시작하여 남쪽으로 전개하고, 현재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적용되는 지역구분이 적용되어 세분화되고 있다(Wikipedia 2009a). 영국처럼 자국에서 사용하는 지역구분을 적용한 전개방법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인디아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4판에서는 앞서 언급한 12개국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들의 지방이 세분화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4판에서는 '918.3 이란(페르시아)', '918.7 터키'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역구분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5판에서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역구분을 삭제 하였다. 이는 일관성 없는 지역구분에 체계화하고 분류기호를 최소화하는데

<표 5> 외국 국가의 지역전개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918 .3	이란(페르시아) Iran(Persia)	918.3	이란(페르시아) Iran(Persia)
.31	길란(第一州) Gilan		
.32	테헤란(第二州) Teheran		
<중략>			
.39	쿠라산(第九州) Khurasan		
.395	이스파한(第十州) Isfahan		
924	영국(英國)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지역구분표>
.4	런던 London	-24	영국, 아일랜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6	스코틀랜드 Scotland	-241	스코틀랜드 Scotland
.7	웨일스 Wales	-2411	하이랜드 Highlands
.8	아일랜드 Ireland	-2412	그램피안 Grampian
.9	북(北)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2413	테이사이드, 파이페 Tayside, Fife
		<중략>	
		-246	잉글랜드 남부 South England
		-2461	켄트 Kent
		-2462	서리 Surrey
		<중략>	
		-2469	콘월 Cornwall
		-247	웨일즈 Wales
		-248	아일랜드 Ireland
		-249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목적이 있다고 본다. '지역구분표'에는 대부분의 외국 지역구분을 최대 4자리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의 국가와 주요 국가의 세계적인 도시인 경우에는 5자리까지 세분화하여 관련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전개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텐진(天津)은 -12124, 베이징(北京)은 -12126, 슬로베니아는 -29941, 크로아티아는 -29942 등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출판되는 자료의 양과 우리나라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의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3.1.7 중앙 및 서남아시아 국가의 재배열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 재배열 및 국명이 조정되었다. 4판에는 특정 국가를 강조하여 전체적인 연결성이 부족하였으나, 5판에서는 국제적인 관례에 근거하여 국가들의 범주가 조정되었다. 4판에서는 '916 중앙아시아'에 포함되어 있던 '916.1 西部투르크스탄'을 '916 중앙아시아'로 옮기고, '아프카니스탄'이 916.1로 재배열되었다. 서부투르크스탄은 국명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일부 지역을 지칭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916 중앙아시아'로 옮긴 것이 적절하다. 또한 아프카니스탄은 학자에 따라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나 중앙아시아로 '~스탄' 국가들을 함께 범주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DDC 22판에서도 아프카니스탄이 중앙아시아로 구분되어 있어서, 중앙아시아로 재분류하는 것이 일반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본다. 또한 중

앙아시아의 국명이 변경되었는데, 5판에서 사용되는 국명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4판에서 '키르기스', '카자흐', '타지크', '우즈베크', '투르크멘' 등은 5판에서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 변경되었는데, 실제적인 활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본다(표 6 참조).

'918 서남아시아, 중동'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918.2 아프가니스탄'이 '916.1'로 이동하였고, 대신에 '918.4 이라크', '918.5 시리아', '918.6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이 '919 아라비아半島'에서 이동되어 새로 삽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4판의 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지역구분은 지리적인 구분에 근거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를 포함하였다고 본다. 아라비아 반도에 대한 지리적인 구분은 시리아 남부지역과 이라크 서부지역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리아와 이라크가 아라비아 반도에 포함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아라비아반도에 포함된 것은 오류라 생각된다. 아라비아 반도에 대한 정치적인 정의는 예멘, 오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을 포함하고 있다(Wikipedia 2009b). 한국십진분류법의 지역구분은 국가를 기준으로 지역구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범주는 지리적인 구분보다 정치적인 구분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5판에서 아라비아 반도에 포함되는 국가의 재조정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표 7 참조).

<표 6> 중앙아시아의 국명 변경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916	中央아시아 Central Asia	916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동서부투르크스탄의 종합저작을 포함한다.
.1	西部투르크스탄 West Turkestan	[.1]	서부투르크스탄 West Turkestan 916에 분류한다.
.2	키르기스 Kirgiz	.1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전 918.2]
.3	카자흐 Kazakhstan	.2	키르기스스탄 Kirgizstan
.4	타지크 Tadjikistan	.3	카자흐스탄 Kazakhstan
.5	우즈베크 Uzbekistan	.4	타지키스탄 Tadjikistan
.6	투르크멘 Turkmenia	.5	우즈베크스탄 Uzbekistan
.9	코카시아 Caucasus	.6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a
.93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9	코카시아 Caucasus
.95	그루지아 Gruzija	.93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97	아르메니아 Armenia	.95	그루지아 Gruzija
		.97	아르메니아 Armenia

<표 7> 서남아시아와 아라비아반도 국가의 재배열

한국십진분류법 4판		한국십진분류법 5판	
918	西南아시아(近東)(中東)	918	서남아시아(中東)
.2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918.2]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3	이란(페르시아) Iran(Persia)	.3	이란(페르시아) Iran(Persia)
.7	터키(土耳其) Turkey	.4	이라크 Iraq
		.5	시리아 Syria
		.6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919	아라비아반도半島	.61	레바논 Lebanon
.1	이라크 Iraq	.63	이스라엘 Israel
.2	시리아 Syria	.65	요르단 Jordan
.3	레바논 Lebanon	.7	터키 Turkey
.4	이스라엘 Israel	.79	사이프러스 Cyprus
.5	요르단 Jordan		
.6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919	아라비아반도와 인접지역
.7	쿠웨이트 Kuwait	.3	예멘 Yemen
.75	오만 Oman	.4	오만 Oman
.8	예멘 Yemen	.5	아랍에미리트 Arab Emirates
.9	바레인 Bahrain	.6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91	카타르 Qatar	.7	쿠웨이트 Kuwait
.93	아랍에미리트 Arab Emirates	.8	카타르 Qatar
		.9	바레인 Bahrain

3.2 대한민국의 시대구분

4판에서 역사(900) 분야의 국내 시대구분의 경우 '911.077 1993-'까지 전개되고 있다. 5판에서는 기존의 한국십진분류법 시대구분 기준에 따라 2000년 이후의 분류기호를 '911.08'로 부여하고 '911.077 김영삼 대통령 시대의 문민정부', '911.078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국민의 정부', '911.081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참여정부', '911.082 이명박 정부'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분류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구분 방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틀은 역사 자료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역사관련 자료는 왕조를 기

준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왕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관점이 변화되었다고 본다.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역사의 중심은 국민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시대구분에 대한 분류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표 8 참조).

3.3 역사 분야의 주기 정리

4판 역사(900) 분야의 주기는 연표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분야의 주기에 비해 상당히 길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항목 주기는 매우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하지만 5판에서는 대부분의

<표 8> 대한민국의 시대구분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911 .07	大韓民國時) 1945-	911.07	대한민국시대(大韓民國時代) 1945-
.071	軍政時代 1945-1948	.071	군정시대 1945-1948
<중략>		<중략>	
[.075]	第4共和國 1972-1981	.075	제5공화국 1981-1988
.075	第5共和國 1981-1988	.076	제6공화국 1988-1993
.076	第6共和國 1988-1993	.077	문민정부 1993-1998
.077	1993-	.078	국민의 정부 1998-2003
		.08	21세기 2000-
		.081	참여정부 2003-2008
		.082	이명박 정부 2008-

〈표 9〉 중국 역사분야의 주기 간소화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912.068 德宗, 宣統帝(光緒, 宣統) 1875-1912 한민족의 혁명운동 및 청조의 멸망, 청불전쟁 1884, 청일전쟁 1894-1895, 변법자강운동과 무술정변 1898, 의화단란 1899-1900, 의화권 비요란 1900-1901, 제2 호남사건 1906, 황강사건 1907, 안경포병대 사건 1908, 섭정왕암살사건 1909, 광동신군사건 1909, 신해혁명 1911 등을 포함한다.	912.068 덕종(德宗), 선통제(宣統帝) (광서 光緒, 선통 宣統) 1875-1912 한민족의 혁명운동 및 청조의 멸망 등을 포함한다.
912.071 初期共和國政府 1912-1927 제 2·3 혁명기 1912-1916, 원세개의 반동 및 체제운동에 대한 혁명, 남북대립시대 1916-1927, 북방군벌과 남방혁명파의 대립, 남북전쟁 1918-1919, 오사운동 1919, 안직(안휘파와 직예파) 전쟁 1920, 1·2·3차 광동정부(손문정부) 1921-1923, 1·2차 봉직(봉천파와 직예파)전쟁 1922-1924, 국공합작(1차) 1924-1927, 북벌 1926-1028, 남경사건 1927, 제남사건 등을 포함한다.	912.071 초기공화국정부(初期共和國政府) 1912-1927

〈표 10〉 일본 역사분야의 주기 간소화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913.026 平安時代 [桓武-安徳] 784-1185 평안전기[환무-문덕] 784-858, 약자란 810, 등원시대[청화-후냉천](섭관영화시대) 858-1068, 승평란 935, 천경란 939-940, 원정시대[후삼조-이조] 1068-1155, 원평시대 1155-1165, 전구년후삼년역 1054- 1087, 보원란 1156, 평치란 1159, 육파라시대 [육조-안덕](평씨시대) 1165-1185 등을 포함한다.	913.026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

주기가 간략하게 기술되었다. 예를 들면, 4판의 중국 역사에 있어서 '912.071 初期共和國政府 1912-1927'의 주기에는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12년에서 1916년 사이에 발생한 제2, 제3 혁명기와 1916년에서 1927년 사이에 발생한 남북대립시대 등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주기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내용은 중국에서 1912년과 1927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주기에서 설명할 필요 없다고 본다. 그래서 5판에서는 시대 구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되었다(표 9 참조).

4판에서 일본 역사 역시 시대별 구분에 있어서 상세한 주기가 있는데, 5판에서는 많은 주기가 삭제되었다. 예를 들면, 4판에서 '913.026 平安時代'의 주기에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었다. 하지만 5판에서는 이들이 모두 삭제되었다(표 10 참조).

3.4 용어의 조정

3.4.1 중국 및 일본의 용어 변경

4판에서는 중국 및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한자로 표기

하고 색인에는 우리말로 읽어 표기하였으나, 5판에서는 표목을 한글로 표기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글 표기를 위해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여 변경되었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 제2항의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에 따라, 4판에서 河北省, 山東省, 甘肅省, 青海省 등으로 표기된 중국 지명은 5판에서는 ‘허베이성(河北省)’, ‘산둥성(山東省)’, ‘간쑤성(甘肅省)’, ‘칭하이성(青海省)’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 변화는 역사적인 자료에 대한 분류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지역정보를 분류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표 11 참조).

일본의 시대명칭 역시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 제3항의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4판의 ‘大和時代’, ‘大化改新時代’, ‘奈良時代’, ‘平安時代’, ‘明治時代’, ‘大正時代’, ‘昭和時代’, ‘平成時代’는 5판에서 ‘야마토시대(大和時代)’, ‘다이카개신시대(大化

<표 11> 중국 지명의 변경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지역구분표)	
912.1	北部(華北) North China	-12	중국(中國)
.11	東北地區	-121	북부(華北 華北) Northern China
.12	河北省(冀)	-1212	허베이성(河北省), 텐진(天津), 베이징(北京)
.13	山東省(魯)	-12124	텐진(天津)
<중략>		-12126	베이징(北京)
.18	甘肅省(隴)	-1213	산둥성(山東省)
.19	青海省(青)	<중략>	
.2	中部(華中) Central China	-1218	간쑤성(甘肅省)
.21	東部海岸地區	-1219	칭하이성(青海省)
.22	江蘇省(蘇)	-122	중부(華中 華中) Central China
.23	浙江省(浙)	-1222	상하이(上海), 장쑤성(江蘇省)
<중략>		-12222	상하이(上海)
.28	湖南省(湘)	-12226	장쑤성(江蘇省)
.29	四川省(蜀)	-1223	저장성(浙江省)
		<중략>	
		-1228	후난성(湖南省)
		-1229	쓰촨성(四川省)

<표 12> 일본 시대구분의 명칭 변경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913.02	古代 -1185 Ancient history	913.02	고대 -1185 Ancient history
.021	開國傳説	.021	개국전설(開國傳説)
.022	大和時代(氏姓國家時代) -645,	.022	야마토시대(大和時代) -645,
.024	大化改新時代[孝德-文武](近江時代) 645-710	.024	다이카개신시대(大化改新時代) 645-710
.025	奈良時代[元明-光仁] 710-784	.025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 729-790
.026	平安時代[桓武-安徳] 784-1185	.026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
.03	中世(近古), 前期封建時代 1185-1600 Medieval history	.03	중세(近古), 전기봉건시대 1185-1600
<중략>		<중략>	
.05	明治時代, 最近世 1867-1912 Meigi period	.05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7-1912 Meigi period
.052	前期 1867-1884	.052	전기 1867-1884
.055	後期(伊藤 1次-西園寺 2次 内閣) 1885-1912	.055	후기 1885-1912
.06	大正時代 1912-1926 Taisho period	.06	다이쇼시대(大正時代) 1912-1926 Taisho period
.07	昭和時代 1926-1989 Showa period	.07	쇼와시대(昭和時代) 1926-1989 Showa period
.072	後期 1926-1945	.072	전기 1926-1945
.075	後期 1945-1989	.075	후기 1945-1989
.08	平成時代 1989- Heisei period	.08	헤이세이시대(平成時代) 1989- Heisei period

改新時代), '나라시대(奈良時代)', '헤이안시대(平安時代)', '메이지시대(明治時代)', '다이쇼시대(大正時代)', '쇼와시대(昭和時代)', '헤이세이시대(平成時代)'로 조정되었다(표 12 참조).

3.4.2 국명 및 지명의 변경

분류표에서 국명이나 지명의 변경은 매우 중요하다. 분류를 담당하는 사서는 지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류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명이나 지명의 표기가 중요한 접근점 역할을 담당한다. 동시에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분류표는 정보검색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

에 변경된 국명이나 지명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국명이나 지명의 변경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하는데, 국명이나 지명이 변경되는 경우와 한국십진분류법 4판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국의 지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사용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첫째로 국가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아프리카의 '자이르공화국'이 1997년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변경되어 수정되었고, '中央아프리카聯邦'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국명이므로 '말라위 및 인접국가'로 변경되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어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4판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었다. '뉴헤브리디스제도(965.4)'는 1980년 '바누아투'로 독립되었

〈표 13〉 국명 및 지명의 변경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931	북아프리카 North Africa
933	바바리諸國 Barbary States	941.1	노스웨스트, 유콘, 누나부트 Northwest Territories, Yukon, Nunavut [전 북서지방]
936.9	中央아프리카 聯邦 Central African Federation	936.9	말라위 및 인접국가 Malawii and adjacent countries [전 중앙아프리카 연방]
941.1	北西地方 Northwest territories	962.2	노던 Northern [전 북부지방]
962.2	北部地方 Northern territory	.3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Western Australia [전 서오스트레일리아]
.3	서오스트레일리아 Western Australia	.4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South Australia [전 남오스트레일리아]
.4	남오스트레일리아 South Australia		

고, '길버트 및 엘리스제도(966.5)'는 1979년 '키리바시'로 독립되었지만, 4판에서 반영하지 않아 5판에서 이들 국가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4판에서 캐나다 북부지방인 Northwest Territories를 '941.11 북서지방'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라고 본다. 고유한 지명은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명인 '노스웨스트'로 바꾸어 표기하는 것이 적합하다. 아프리카의 북부지방의 옛 명칭인 '933 바바리제국(Barbary States)'을 삭제하고 이를 '931 북아프리카'로 통합되었으며, '929.76 백러시아'는 '929.7 벨로루시'로 변경되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Western Australia와 South Australia 주를 4판에서는 서오스트레일리아, 남오스트레일리아로 각각 표기하였는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격제도 Outlying Islands(968.9)'는 태평양에 산재해 있는 미국령의 소규모 섬들(예, 미드웨이섬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5판에서는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아웃라이닝'으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East Timor'는 우리나라에 '동티모르'로 알려져 있어서 '이스트 티모르' 대신 '- 1476 동티모르'로 표기하였다(표 13 참조).

4. 제6판 개정 방향

4.1 한국지역구분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은 지역구분에 대한 계층구조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각국에 대해서 지역별 계층구조를 적용하여 전개하였다.

지역구분 계층적용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은 지역구분의 일관성을 포기한 것으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시기적으로 행정구역의 통폐합 논의가 있었다고 하나 도서관 분류표의 일관성을 무시하고 우리나라만 지역구분을 달리 전개하였다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지역구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와 같은 시·군·구 단위의 세부적인 지역구분이 적절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시·도의 광역단위 지역구분이 적절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5판의 우리나라 지역구분에서 계층구조를 포기한 것은 분류기호가 길어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하며, 동시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폐합을 염두에 둔다면, 광역단위의 지역구분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때 기존의 시·군·구는 주기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 광역단위의 지역구분은 현재 자주 발생하는 행정구역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현실적으로 출판되는 자료의 양과 비교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

4.2 지역구분 전개방법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역구분은 북동쪽에서 시작하여 남서쪽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개방법이 적절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DDC의 지역구분에서 캐나다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개되지만, 미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추정하건데 DDC의 지역구분은 미국과 캐나 다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전개하였다고 본다. 즉 북미의 역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동쪽에서 시작되었다. 이 지역을 모이주기 위해서 캐나다의 서쪽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서

쪽으로 끝나는 전개 방법을 취하였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함경북도나 우리나라의 변방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및 지리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지역구분은 그 지역 역사의 출발점이 첫 번째로 배열되어야 한다. 특정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가 처음 시작된 지역의 역사자료부터 배열되어야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구분을 단순히 지리적인 관점에서 나눈다면 그것은 지역구분이 아니라 지리구분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각국의 수도를 출발점으로 하는 지역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이 서울이므로 우리나라 지역구분은 서울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영국은 런던에서 시작하며, 독일은 베를린에서, 프랑스는 파리에서 지역구분이 시작되어야 한다.

각 국가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모든 나라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일직선상에 자료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배열하는 방법에서 최상의 방법이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구분의 전개방법에 있어서 체계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에서는 각국의 수도를 출발점으로 하고 각 지역을 방사선 형태로 전개하는 지역구분 방법을 제안한다.

4.3 외국 지명

외국 지명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 지명은 중국 및 일본과 그 밖의 지역으로 양분할 수 있다. 중국 및 일본은 그 나라 원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방법을 취하고 나머지 국가의 지명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방법은 지명에 대한 일관성이 없으며, 추후 분류표를 개정할 때 담당자에 따라 지명이 자주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5판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명, 예를 들면,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을 제외하고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표기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명들은 주로 영어식 표현을 표기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일관성이 없어 분류표를 개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명에 대한 체계적인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자국어로 된 지명을 적용하고 필

요하다면 괄호에 영어로 표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교역하고 있으며,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자료가 수집되면서 그 나라 지명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식 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4.4 시대구분

우리나라 시대구분에 대한 분류방법이 수정되어야 한다. 앞서 ‘대한민국 시대구분’ 부분에서 언급하였지만, 과거 왕 중심의 시대구분은 과거 역사 기록이 왕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대통령 중심의 역사구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DDC에서도 미국의 시대구분을 대통령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한국십진분류법에서는 연도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시대’에 들어와 초기에는 공화국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가, 다음에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명칭 또한 다양하다. 어느 시대에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여 그 명칭을 적용하고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대통령 이름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상 혼란함을 피하기 위해 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대구분이 필요하다. 5판의 시대구분으로 세계사와 아시아 역사는 총괄적으로 ‘원시시대(1)-고대(2)-중세(3)-근세(4)-20세기(5)-21세기(6)’의 순서대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와 아시아 역사와 약간 다르게 ‘원시시대(1)-고대(2)-삼국시대(3)-고려시대(4)-조선시대(5)-황일시대(6)-대한민국시대(7)-21세기(8)’로 구분되어 있다. 중국은 ‘원시시대(1)-고대 상(2)-고대 하(3)-중세 상(4)-중세 하(명나라)(5)-청나라(6)-민국시대(7)-중화인민공화국시대(8)’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유럽 역시 유럽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나열한 후, 주요 국가에 대한 시대구분을 그 나라에 적합하게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 시대별 역사나 시대구분이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을 위한 시대구분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 시대구분 보조표를 만드는 방법, 김자후(2005)가 주장하는 『내부보조표』 사용, 혹은 DDC의 ‘add table’의 사용 등이 주장되고 있

다. 한국십진분류법에는 지역별(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로 총괄적인 시대구분이 있고 각국은 그 시대구분을 각국에 적합하게 변형하는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의 시대구분은 김자후(2005)가 주장하는 「내부보조표」 사용이 적합하다고 본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의 역사(900) 분야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이전판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6판을 위해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역사(900)의 핵심 분야인 지역구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5판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역구분표'의 확장이며 이 중에서도 북한 지역에 대한 지역구분의 재조정이라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지역구분은 오늘날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구역 명칭을 적용하여 새롭게 전개되었다. 또한 외국 지역에 대해서는 계층구조 원칙을 적용하여 전개되었고, 세계 주요국가 12개국에 대해서만 각 지방을 세분화하였고 나머지 국가는 국가단위로 간략화시켰다. 또한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명 조정과 지역에 대한 구분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대구분을 확장하였다.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 분야의 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의 지명 및 인명에 대해 그 나라의 원음을 적용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변화된 국명과 지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식 원음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제6판 개정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지역구분을 계층구조를 적용하여 시·도 광역단위로 구분한다. 둘째, 지역구분 전개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수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방사선 형태로 전개한다. 셋째, 외국 지명은 자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표기하고 필요에 따라 영어로 부기한다. 그리고 넷째, 시대는 연도별로 구분한다.

【참고 문헌】

곽철완. 2004. 한국지리구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135-154.
김명옥. 2002. KDC, DDC 기독교 분야 전개에 관한 비교

고찰. 『문헌정보학연구지』, 28: 9-28.

- 김명옥. 2003. KDC, DDC, LCC의 기독교 문헌분류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287-311.
김자후. 2002. KDC 4판의 언어류 관련 부문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203-226.
김자후. 2005. KDC 4판의 역사류 관련 부문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353-370.
김자후. 2009. KDC 5판에 대한 제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5-26.
김정현, 강명수. 2008. KDC 제4판 식품영양학 분야의 수정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171-188.
김정현, 문지현. 2001. 한국십진분류법 농학류의 분류기호 수정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1): 223-248.
김정현. 2008. 식물학의 학문분류와 문헌분류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369-386.
남태우, 백혜경, 이형미, 정수진. 2008. 문헌분류법에서의 지역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189-214.
대한출판문화협회. 2008. 『출판연감』.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2008.
문지현. 2000. 『한국십진분류법 농학분야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농학문헌의 분류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변우열. 1992. 『종교류 문헌분류 전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여지숙, 박미성, 황면, 오동근. 2008. KDC 제4판 컴퓨터과학분야 전개의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345-368.
여지숙, 이준만, 오동근. 2008. KDC 제4판 화학공학(570)분야 전개의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249-266.
오동근, 여지숙. 2000.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종교류(200)의 재전개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253-278.
이명규, 김정현. 2003. DDC 농학분야의 분류체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2): 143-161.
이창수. 2003. UDC 지리·전기·역사류의 특성과 KDC에

- 서의 적용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125-145.
- 이창수. 2007. LCC 지도자료 분류의 특성과 KDC에서의 적용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161-181.
- 정옥경. 1981. 『DDC의 기술과학분야(600)에 대한 분류전개변천고』.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정해성. 2007.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개정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529-546.
- 최희근. 1991. 『DDC의 총류전개상의 제문제: 주로 16판부터 20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통계청. 2008. 한국의 사회지표, [인용 2009.8.10]. <<http://www.nso.go.kr/>>.
- Wikipedia. 2009a. [인용 2009.8.15]. <http://en.wikipedia.org/wiki/Regional_Assemblies_in_England>.
- Wikipedia. 2009b. [인용 2009.8.15]. <http://en.wikipedia.org/wiki/Arabian_Peninsula>.